

1930년대 태평양문제연구회(IPR)의 토지 이용 조사 연구 사업 기획과 성격

- 동아시아 삼국 결과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김진영*

〈차 례〉

1. 머리말
2. 태평양문제연구회(IPR)의 토지 이용 조사 사업 수립과 전개 과정
3. 한·중·일 토지 이용 조사 연구의 보편성: 지식정보, 문법, 국가사회
4. 한·중·일 토지 이용 조사 연구의 특수성: 공간과 주체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로 IPR의 예산 지원 규모를 비교 분석하여, 전체 연구 사업 내 토지 이용 조사 항목의 중요도와 한·중·일 삼국의 항목 내 위상을 측정하였다. 사회과학적 지식정보 생산과 활용이라는 대의 아래 미일 양국이 협력한 결과, 양자의 이해관계가 투영된 중국 및 일본의 토지 이용 조사 연구는 IPR의 전체 사업 중에서도 수위권에 드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예산만 투입되었으며, 추가적인 지원 요청 역시 묵살되었다. 이로부터 '제국-식민지' 사이의 공간적 차이에 따른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드러났다.

둘째로 삼국의 연구가 공유하는 보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지리학 자료 구축 및 비교 연구의 기반으로써 지식정보 생산이라는 사업 주체 IPR의 목적이 각 연구에 적용되는 양상을 밝히고, 사업 수행 방식에서 관찰되는 미국식 사회과학 연구공동체의 학문적 문법과 각 지역 국가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업 사회 개혁론(운동)의 지향점을 발굴하였다.

셋째로 각국 사업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지점을 공간별 위계와 주체 선택이라는 기준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같은 제국(주의 국가) 출신 연구자 간에도 연구 지역의 특색과 현실적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건에 따라 동거나 연구 중점 분야에서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제국 - (반)식민지 관계를 통하여, 공간적 특성이 주체 선택의 문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경우 연구 사업의 객체성과 개혁 주체의 상대적 자주성이 병립하는 특색이 나타난 데 반해, 식민지 조선은 완전한 주권 상실 상황 속 일부 민간 세력이 주도하는 사회 운동의 차원에서 개혁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이훈구(李勳求), 존 러싱 벽, 나스 시로시(那須 皓), 태평양문제연구회, 토지 이용 조사, 전간기(戰間期)

1. 머리말

제국주의 시대가 개막한 19세기 중반부터 일찍이 미일 양국은 해외 시장 확보라는 각자의 내적 동인에 따라 그 핵심인 중국과 만주 시장의 배타적 독점권을 놓고 경쟁적으로 태평양에 진출하였다.¹⁾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후 기존의 고립주의에서 탈피해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진출하려는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²⁾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맞서 일본 역시 자국 세력권의 이해관계를 국제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행보에 나서게 된다. 개항 이래로 제국의 생존선 혹은 이익선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로의 팽창에 골몰하던 일본은, 삼국간섭 이래 계속되는 서구 열강의 개입과 견제 그리고 공황의 여파 속에서 일만지 엔블록 경제권의 건설이라는 독자 세력화를 시도하였다.³⁾

1) 물론 이 과정은 대결 일변도의 모습이 아닌, 협조와 경쟁 노선이 병행하는 양상을 띠었다. 운동의 결과 태평양 지역 내 열강 간 상호 세력균형 상태인 워싱턴 체제가 탄생하였다. 고정휴, 『태평양의 발견과 근대 조선 세계와 마주하다』, 나남출판, 2022, 217~270쪽.

2) 이러한 동향은 IPR의 사실상 본부인 미국이사회(American Council)가 협회원에게 발송한 각종 회보 및 기고문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문건의 논조는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이 표면화된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급변하여, 본격적으로 국가 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 대처 방안으로서 일본의 경제적 상황과 그 장단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대일 압박의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 분석이 전면에서 나서게 된다. Laurence H. Shoup and William Minter, *Imperial Brain Trus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Monthly Review Press, 1977, pp. 22, 23, 27, 53, 128~135; Peter Grose, *Continuing the Inquir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rom 1921 to 199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6, pp. 24, 69, 72; "Memorandum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American Council)", <https://www.jstor.org/journal/memoinspacirela>, 2022-12-27 검색.

이 와중에 식민지 조선은 전시총력전체제 하 군국주의 팽창의 후방 병참 기지라는 위상에 걸맞은 적절한 수준의 생산력 확충과 계급 갈등의 조정을 통한 사회 안정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농촌진흥운동 및 농공병진으로 상징되는 개발사업과 조선농지령으로 대표되는 식민지주제 하 계급 타협적 ‘사회입법’을 도입하여, 조선 사회의 구조적 (재)통합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사회의 각계각층, 그 중에서 서도 기독교 - 민족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조선 사회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⁴⁾

이상의 1930년대 이후 전간기(戰間期, Interwar Period) 정세 변동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이하 IPR로 약칭)의 토지 이용 조사 사업은 각국이 처한 여러 대내외적 문제와 그 해결 양상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로써 새로이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차원적 판단에 기초한 IPR의 기획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 삼국의 조사 활동이 수행되는 다채로운 맥락과 상호 관련성의 측면은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다. 대표적으로 호퍼는 1930년대 IPR의 주요 사업 성과로서 중국,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 필리핀의 인구 변동과 토지 이용 그리고 식량 공급 문제에 관한 일련의 국가 - 지역간 비교 연구 기획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렀다.⁵⁾ IPR의 흥망성쇠를 다룬 토마스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IPR에 용공(容共) 혐의가 제기된 역사적 맥락과 단체의 해산 과정에 분석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간기의 활동은 일종의 전사(前史)로 한 장(Chapter)의 분량이 할애되어 있을 뿐이다.⁶⁾

3) 고정휴, 「식민지시대 미국 지식인의 한국문제 인식 - 태평양문제연구회(IPR)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58, 한국역사연구회, 2006, 125쪽.

4) 자세한 사항은 김진영, 「일제 식민지 시기 이훈구의 현실 참여와 사회개혁론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참조.

5) Paul F. Hooper,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and the Origins of Asian and Pacific Studies”, *Pacific Affairs* 61, No. 1,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88, pp. 104-105.

6) John N. Thomas,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Asian Scholars and American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4.

이와 달리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IPR 기획의 실체 혹은 본질에 관한 실증적 탐구의 일환으로써 연구 사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발굴하여, 이것이 해당 지역 국가사회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정휴는 IPR 조선지회의 설립 배경과 조선사정연구회와의 관계 및 해체 사유에 대하여 식민지 조선 사회 내부의 민족주의-사회주의 세력별 동향과 조선-일본 간 국제적 충돌이라는 외부 요소를 통하여 설명하였다.⁷⁾ 유사한 맥락에서 김경일 또한 국가사회(혹은 민족) 대 개인(혹은 자유) 간 가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IPR 참여 동아시아 삼국 지식인의 속성을 국가별로 유형화한 후, 이로부터 기구 내 한·중·일 지식인의 대미 인식 및 상호 교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⁸⁾ 두 연구는 IPR의 연구 기획 및 결과물에 관한 학계 차원의 조사가 미진하던 시절 제출된 선구적인 연구로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사료적 한계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조직 구성 변화 혹은 집단적 정체성 분석 같은 전반적인 경향 도출에 천착하는 초기 연구로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문적 성취 기반 위에서 IPR의 연구 사업 그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김인수는 통계 조사가 갖는 실천적 함의 즉 문제 인식과 항목 설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식론적 정치 과정에 주목하여, 조선총독부의 통계와 대비되는 이훈구의 독자적인 토지 이용 조사가 내포하는 ‘헤게모니 경쟁’ 혹은 ‘대항 조사’로서의 성격을 분석하였다.⁹⁾ 또한 김진영은 1920~194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업 전문가였던 이훈구의 사회개혁론(운동)의 전개와 변천 과정을 탐구하면서, 그의 토지 이용 조사가 IPR의 전체적인 조율과 러싱 벅 및 나스 시로시의 깊은 영향 아래 수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¹⁰⁾ 근래 들어 남경 금릉대학의 후신인 난징농업대학에서 발견된

7)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 현실』 6, 한국역사연구회, 1991.

8) 김경일, 「식민지 시기 국제 민간 기구의 내용과 성격 - 태평양문제연구회(IPR)와 태평양회의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9) 김인수, 「일제하 이훈구의 토지 이용 조사의 정치적 의미」, 『사회와 역사』 107, 한국사회사학회, 2015.

10) 김진영, 앞의 글.

러싱 벅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복원한 연구가 제출되었다. 저서는 러싱 벅이 남긴 당대 정보 자료의 신뢰도와 정확성 그리고 표준화 정도를 검증하는 한편, 경제통계학적인 접근 방식 아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농업 생산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¹¹⁾ 하지만 앞선 세 연구 모두 러싱 벅 혹은 이훈구라는 개별 인물과 그가 남긴 성과물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기획 연구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상관관계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마쓰모토는 IPR의 조사 사업이 지나는 제국주의-식민지적 맥락에 유의하여 개별 연구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삼자간 연관성의 일면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해외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 중국이나 경쟁 상대였던 일본에 비하여, 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국제 연구자 집단 내에서조차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올바르게 지적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러한 제국-식민지라는 구조적 제약과 그로부터 배태된 식민지 조선의 학문적 불임성만을 강조하는 오류에 빠졌다.¹²⁾ 또한 저지는 세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과 일부 논점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뿐, 지역학적 지식 생산 및 축적이라는 IPR의 지원 목적과 각국 연구자가 추구하는 사회 개혁의 공통된 지향 그리고 각자가 처한 조건별로 실천상의 분화가 발생하는 양상은 구명하지 못하였다.¹³⁾

이렇듯 기존 연구는 IPR의 동아시아 토지 이용 조사 사업 도입 당시 양국의 복합적 관계나, 이로부터 야기되는 각국 사업의 특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통 기획의 산물로서 삼국의 토지 이용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그동안 명시적으로 드러

11) Hao Hu, Funing Zhong, Calum G. Turvey, *Chinese Agriculture in the 1930s Investigations into John Lossing Buck's Rediscovered 'Land Utilization in China' Microdata*, Palgrave Macmillan, 2019.

12) 그 반례로써 이훈구는 덴마크 국민고등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여, 1933년 고등농사학원이라는 보습 학교를 평양 숭실전문학교 농학과 내에 설치한 후 1936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총 2회의 졸업생을 배출한 고등농사학원은, 숭실전문학교 폐교 이후 학원 졸업생 중 한 명인 김두혁이 대동농사학원을 새로 개원하고 승진 교수진의 다수가 이사진으로 합류하면서 그 학동이 전수되었다. 김진영, 앞의 글, 17~19쪽.

13) 松本武祝, 「太平洋問題調査会(IPR)における土地利用研究プロジェクトの展開 - 中国・日本・朝鮮の研究を中心に -」, 『アジア経済』 63卷 3号, 日本貿易振興機構 アジア経済研究所, 2022, 2~33쪽.

나지 않았던 각 연구간 상호 연관성을 밝힌다. 여기에 더하여 각 저서에 기본 전제로서 IPR의 의도와 목적이 공통적으로 관철되는 양상은 물론, 삼국이 처한 개별 상황과 연구자의 지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경향 또한 추가적으로 해명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국제 정세 변동에 유념하는 한편 한·중·일 삼국의 지역별 토지 이용 조사 성격과 위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기준 혹은 지표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설정한다. 먼저 공간적 층위로서 지역 혹은 국가 차원에서 작동하는 제국과 식민지 간 차이에 주목한다. 우선 미국과 일본이라는 환태평양 제국주의 국가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식민지 경영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책 사업에 호응하며 당시 민간 차원의 지식 정보 수요를 충족하는 대리인으로서 IPR이 존재한다. 반면 자국의 사회 개혁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이라는 (반)식민지 지역의 절박한 요구 역시 당시 IPR의 토지 이용 조사 사업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듯 제국과 식민지라는 위계화된 공간 구조는 전체 사업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하는 공통의 외력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사회의 요청과 이를 반영한 출신 지역별 연구자 집단의 개인적 지향 및 선호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는 조건으로 기능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대표 연구자 세 명 모두 당시 동아시아 농업 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 방향과 주체 설정에 있어서 주안점은 각자가 처한 시공간적 제약 및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지점을 포착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연구자 개인의 지향 혹은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한 관민 차원의 층위를 제시한다. 이로써 당대 화두였던 농업 부문의 사회개혁론(운동)의 전개 방향과 주체 설정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공간-주체별 비교 기준표

주체 \ 공간	제국	식민지
관	나스 시로시 러싱 벽	이훈구 [*]
민	러싱 벽	이훈구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는 각 사업의 결과물인 *Land Utilization in China*, *Land Utilization in Japan*,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및 관련 서적을 선정하였다. 이로써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IPR의 예산 지원 규모와 각 지역 국가사회의 반응을 통하여, 연구별 위상 및 중요도를 서열화한다. 이로부터 가치중립적이라 표방되는 연구 사업 내부의 공간적 차이에 따른 차별과 배제의 양상을 드러낸다. 둘째로 각 연구가 공유하는 최소공배수를 특정한다. 지역학 자료 구축 및 비교 연구라는 IPR의 목적이 각 연구에 어떻게 관철되는지 조사 사업 내 공통 규칙의 존재 양상을 통하여 밝힌다. 한편 해당 연구가 각 지역의 당대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효용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에 대한 국가사회의 관심 및 지원 양상을 함께 고찰한다. 마지막 셋째로 상술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사업이 실제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과 연구 주체의 성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국 간 혹은 제국과 (반)식민지라는 공간의 규정력이 각 연구자가 자신의 지향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주체로 호명하는 대상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2. 태평양문제연구회(IPR)의 토지 이용 조사 사업 수립과 전개 과정

1930년대 미국은 일본의 중국 시장 독점에 맞서 상품과 자본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서 동아시아 지역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신흥 시장에 관한 자국의 정보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침투에 앞서 지식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거대 독점자본의 일원인 록펠러 재단은 환태평양 연안 지역의 주요 현안에 관한 학술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1925년 7월 미국 지식인이 주도하여 결성한 국제 민간 학술 기구인 IPR의 주요 자금원이 되었고, IPR은 재단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동아시아 연구 기획을 발주하였다.¹⁴⁾

IPR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식민지 조선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다년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세 연구는 IPR 또는 록펠러 재단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동아시아의 주력 산업인 농업 생산 관계에 관한 충실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연구는 연구자의 개인적 지향이나 그들이 처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방법론 그리고 과학적 분석 결과에 따른 사회 개혁의 방향과 주체 설정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드러 내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IPR의 연구 사업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자. IPR이 편찬한 9개년 연구 성과 보고서가 스스로 밝힌 연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에 기반한 논쟁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IPR은 국제 사회의 논쟁거리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환태평양 국가 10개국 출신의 다양한 인종과 이해관계가 서로 얽힌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의 내부 토론을 시도해보았으나, 학자적 양심에 따른 과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민간 학술단체조차 사실 정황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입견 및 편협한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서구 권에서 당연하게 제공되는 기초적인 사실 혹은 수치가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실정이었다.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정확한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면 현실 분쟁의

14) 김진영, 앞의 글, 23~24쪽; 고정휴, 앞의 글, 2006, 123~126쪽.

이성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IPR의 이상주의적 발상에 도화선을 당기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1924년 미국 이민제한법의 제정과 다음 해 열린 IPR 제1차 총회에서 이민법 영향평가 논쟁이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 정보인 인구 증가, 토지 이용, 식량 생산, 생활 수준 등에 관한 사실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아예 부재한다는 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당시 미 당국은 기존의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사실'에 의거하여 이민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IPR은 편람을 통해서 관계 기관과 참여자의 이러한 비과학적 태도야말로 사실상 '제한적인 경험에 기반한 합리화된 편견(prejudices rationalized from limited experience)'에 지나지 않는 경제적·사회적·생물학적 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렇듯 관련된 다방면의 쟁점 사항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경시한 결과, 태평양 지역 내 모든 정치적 문제의 기저에 존재하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인구, 식량 공급, 산업 발전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사실 정보에서조차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명백한 격차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태평양 국가 내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상 및 제도는 상호 간 심오한 이해와 용이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확대재생산된 오해와 불신은 결국 1931년 만주사변으로 대표되는 미일 제국주의 국가 간 충돌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2년 주기로 개최되는 IPR 총회(태평양 회의)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국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쟁점이 연이어 다뤄졌다. 특히 제3·4차 총회(1929, 1931)의 핵심 사안이었던 만주 문제는 해결책으로써 지역 전반에 대한 과학적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IPR은 사건 발생 3년 전인 1928년 관련 4개국(미·영·중·일) 대표로 구성된 공동 연구 기획을 발주하였고, 그 결과 생산된 결과물이 1929년 교토 총회에 보고되어 관련 논의를 촉발시켰다. 더 나아가 IPR은 조사 결과가 1933년 국제연맹 리튼 조사단의 공식 활동 전 관계 당국에 통보되고 후일 세계 여론의 조성에도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구 사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자임하고 있다.¹⁵⁾ 이 점에서 IPR은 스스로 지식정보 생산 및 지역학 기반 구축이라는 존재 목적을 증명하였다.

다음으로 IPR의 전체 연구 기획 중 동아시아 삼국에서 진행된 토지 이용 조사 사업이 점하는 위치와 각 지역에서 해당 연구가 지닌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당시 IPR의 전체 연구 사업 규모 대비 문제의 토지 이용 조사에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협회 내 삼국이 차지하는 위상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다음 [표2]는 IPR이 토지 이용 조사 관련 연구에 투입한 사업비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2] IPR의 한·중·일 토지 이용 조사 관련 자금 투입 추이⁶⁾

(단위: 달러)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합계/평균
Buck (a)	1,700	10,600	15,000	15,000	10,000	10,000	5,000	-	67,300
Nasu (b)	3,250	3,250	5,470*	4,750*	5,000	5,000	1,000**	-	27,720
Lee (c)	-	-	2,500	2,500	-	-	-	-	5,000
소계 (a+b+c)	6,878	15,779	22,400	21,681	16,932	16,933	7,934	0	95,020
총사업 (d)	52,769.20***	33,499.70	56,448.77	60,046.23	46,902.76	44,674.26	39,549.80	45,294.30	379,185.02
분과사업 (e)	19,950	13,850	23,470	22,750	19,500	19,750	6,000	3,000	128,270
총사업 대비 비중 (a+b+c/d)	9.4%	41.3%	40.7%	37%	31.9%	33.5%	15%	0%	26.3%
분과사업 대비 비중 (a+b+c/e)	24.8%	100%	97.8%	97.8%	76.9%	75.9%	100%	0%	77.9%
총사업 대비 분과사업 비중 (e/d)	37.8%	41.3%	41.5%	37.8%	41.5%	44.2%	15.1%	6.6%	33.8%

* 나스 시로시의 두 연구 기획인 Land Utilization in Japan과 Rural Social Life in Japan 사업비의 합임.

** 나스 시로시의 Standards of Living in Agriculture 연구사업비임.

*** 1928년 기본 연구 사업 기금(=12,170)과 IPR 연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회과학연구위원회로 할당된 보조금(40,600)의 합임.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당시 IPR의 전체 연구 지원 자금 중 본 논문의

15)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The Study of International Affairs in the Pacific Area: a review of nine years' work in the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 of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36, pp. 1~3.

16) 松本武祝, 앞의 글, 7쪽;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bid*, pp. 55~60.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식량 공급 - 인구 - 토지 이용’ 관련 연구 기획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3수준(128,270/379,185.02달러, 33.8%)에 달하였다. 그 중에서 총액 대비로는 1/4가량(100,020/379,185.02달러, 26.3%), 총 11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연구 기획 내부로 한정하여 보자면 무려 4/5(100,020/128,270달러, 77.9%)에 달하는 예산이 한·중·일 삼국의 지역 연구에 배정되었다. 이로써 삼국의 연구 사업이 IPR 활동 내 점하는 위치 혹은 중요도를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상 최초로 시도되었거나 그에 버금가는 의의를 지닌 엄밀한 과학적 조사 활동과 그로부터 생산된 통계 자료에 기반한 연구 분석 결과가 당시 동아시아 농촌 사회 경제에 던진 충격 혹은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자.

1890년생인 존 러싱 벅은 1910년대 중반부터 중국 농업 경제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였다. 동시에 그는 연구자이자 사회 활동가로서 다양한 방면의 국민 사회 개혁 운동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관학 협력을 추구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중일전쟁기 중국 경제 전문가로서 미국과 국민당 정부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발현되었다. 한편 그의 연구는 지원 금액이나 기간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PR 동아시아 연구 기획의 중심이자 가장 심혈을 기울인 대표 성과였다. IPR의 자체 성과 보고서에서는 그의 저서를 농작물, 농장 경영, 인구 동향, 생활 수준, 기후 요소, 가격 및 통화 등 중국 농업 경제 전반에 관한 ‘사실상의 농업 표본 조사(virtually a sample agricultural census)’라고 평가하였다.¹⁷⁾ 한편 러싱 벅의 토지 이용 조사 사업은 역사상 최초로 중국의 농업 경제에 관한 포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조사 지역 각지의 수량화된 통계 자료를 표준화된 지식정보로 (재)가공한 뒤, 이렇게 축적된 대량의 정보를 상호 검토한 끝에 일반화된 경향성으로 풀어냄으로써 높은 신뢰도와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실제로 그가 제시한 농경지 구분법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⁸⁾ 이렇듯 *Land Utilization in China*는 당시 학계

17)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bid*, p. 9.

18) Calum G. Turvey, "John Lossing Buck and Land Utilization in China", *Chinese Agriculture*

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념비적인 성과물로 인정받아, 1938년 저자인 러싱 벅은 국민당 정부로부터 채옥대훈장(采玉大勳章)을 받았다.¹⁹⁾

IPR에게 있어 일본 역시 전체 계획의 숫자나 자금의 규모 면에서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연구 지역이었다. 그런 일본의 연구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가 바로 토지 이용과 인구 조사 항목이었다.²⁰⁾ 1888년생인 나스 시로시는 주로 당시 일본 농촌 사회 경제 구조의 해명과 이러한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농주의적 대책 마련에 부심한 도쿄제국대학의 전도유망한 학자였다.²¹⁾ 이러한 문제의식과 IPR의 연구 자금 지원에 기초하여 그는 1929년과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농업 및 토지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서를 출간하였다. 비록 양 저서 모두 시간적 압박 혹은 전시 검열에 따른 구사 자료의 불완전성이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지만,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농촌 사회 경제에 관하여 서구 언어로 작성된 보기 드문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IPR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²³⁾ 한편 일본 정부 내 농업 관료 중에서 실증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되는 대안에 공감하는 집단이 형성되었고, 이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그는 국가 농정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²⁴⁾ 이렇듯 활발한 학술 연구와 사회 활동의 공적이 인정되어, 그는 1940년 훈이등서보장(勳二等瑞宝章)을 수훈하였다.²⁵⁾ 중일전쟁 발발 이후

in the 1930s Investigations into John Lossing Buck's Rediscovered 'Land Utilization in China' Microdata by Hao Hu, Funing Zhong, Calum G. Turvey, Palgrave Macmillan, 2019, pp. 44, 47.

19) Edited by James Terry White, "BUCK, [John] Lossing", *The National Cyclopaedia of American Biography* Vol. 59. James T. White & Company, 1980, pp. 93-94; Calum G. Turvey, op. cit., pp. 33-54.

20)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op. cit., pp. 35-36.

21) 방기중, 「일제하 李勳求의 農業論과 經濟自立思想」, 『역사문제연구』 1, 역사문제연구소, 1996, 122~123쪽.

22) Research Committee of Japanese Council, "PREFACE", *Land Utilization in Japan*,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29, p. i; Shiroshi Nasu, "PREFACE", *Ibid*, pp. i-ii; W. L. Holland, "PREFACE", Shiroshi Nasu, *Aspects of Japanese Agriculture: A Preliminary Survey*,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1, p. ii; "EDITORIAL NOTE", *Ibid*.

23) W. L. Holland, *Ibid*.

24) 「農林官僚団の輝ける指導者だった石黒忠篤氏の最大の盟友の一人であり、いわゆる「石黒農政」の最高ブレインだった。」, 大竹啓介, 「經濟更生運動の指導原理 - 那須皓氏に聞く -」, 『農山漁村經濟更生運動正史・資料』 第6号, 農村更生協會, 1977, 50~51쪽.

그는 제국 권역 내 농업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²⁶⁾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이어진 그의 행보 이면에는 농업 현실 분석 및 진단에 관한 당시 일본 국가사회 차원의 신뢰 혹은 지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세 명의 연구자 중 가장 늦은 시기인 1896년에 태어난 이훈구는 도쿄제국 대학 농학부에서 나스 시로시를 사사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학 농업경제학과에서 철학박사를 받은 도미유학생 출신의 인재였다. 미국 유학 생활에서 획득한 인연 덕택에 IPR과 그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지리학협회의 촉탁으로 만주 및 식민지 조선의 토지 이용 조사에 참여하였던 그는, 연구 조사 과정에서 직접 생산했거나 자신이 가공한 실증적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만주 및 조선의 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획득한 자신의 지적 권위를 활용하여, 그는 추상적 담론 영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현실 개혁을 위한 사회 활동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만주 개척(식민)지대 연구가 마무리된 후 가진 언론과의 대담 자리에서 그는 저서 서문에서 지적인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농민에 무관심한 조선의 식자계급을 비판하였다. 동시에 그는 대책 마련의 한 방안으로 조선 내에 재만 동포와의 연락 및 협조 체계 구축을 담당할 관련 기관의 수립이 요망된다고 역설하였다.²⁷⁾ 1931년 숭실전문학교 농학과 부임 후 안정된 활동 기반을 마련한 그는, 본격적으로 조선 농촌 사회 개혁과 농민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 민간 차원의 교육계몽-협동조합 운동에 매진하게 된다.²⁸⁾ 이처럼 그는 조선총독부와 무관한 별도의 재원 그리고 개념과 범주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심층 연구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조선의 식자층은 물론 식민 권력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²⁹⁾ 결국 이렇게 확보한 학술적 자산 덕분에 그는 1930년대 중후반 변화된 정세 속 새로운 운동 노선을 모색

25) 大竹啓介, 위의 글, 50쪽.

26) 松本武祝, 앞의 글, 18~19쪽.

27) 이훈구, 『만주와 조선인』, 평양 숭실전문학교경제학연구실, 1932, 2쪽; 「중국 남부에 산재한 조선 동포들의 소식 상해에서는 민족주의자가 진출 재만 동포 문제에는 4가지 원인 귀조한 이훈구 박사 담」, 『조선일보』, 1931년 3월 10일.

28) 김진영, 2020, 5~31쪽.

29) 김인수, 앞의 글, 208쪽.

하는 국면에서도, 과거의 경험을 살려 나름의 입장과 근거에 기초하여 비판적 타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제부터 한·중·일 삼국의 사업 착수 과정을 살펴보자. 흥미롭게도 세 곳의 연구 책임자 선정 모두 미국 정부 및 민간 기관 소속 인사와의 인연이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하였다. 그 중심 인물은 농무성 농업 경제국 경제 분석관이자 IPR 및 미국지리학회 회원인 베이커(Oliver E. Baker)였다. 그는 IPR의 국제조사위원회 조사국장(Research Secretary)인 콘들리프(John B. Condliffe)와 지리학협회 회장인 보먼(Isaiah Bowman)에게 자신이 구상한 아시아 토지 이용 조사 연구 사업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담당자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거나(러싱 벽, 나스 시로시) 동문 출신(이훈구)인 세 명을 추천하였다. 그에 따라 콘들리프는 1927년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개월 여간 연구 과제 선정차 각국의 연구자를 방문하는 여정에 올랐다.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러싱 벽 그리고 나스 시로시를 면담한 뒤, 그는 추천자 명단을 확정하여 IPR에 보냈다.³⁰⁾

이훈구의 선정 과정은 시기나 방식의 측면에서 다른 두 명과는 조금 달랐다. 1929년 10월 말경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회 IPR 총회는 조선의 토지 이용 및 농촌 경제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같은 해 12월 베이커는 보먼에게 만주 개척지대 연구 책임자로 이훈구를 소개하는 한편, IPR에는 만주와 조선 양 지역 연구 사업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당시 미국 농무성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이훈구는 콘들리프의 대면 요청과 보먼의 연구 촉탁을 받고 1930년 여름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당시 IPR 조선지회의 참가 자격을 놓고 조선과 일본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연구 활동은 표류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IPR 조사 사업 도중 베이커의 소개로 알게 된 러싱 벽³¹⁾의 추천으로 남경 금릉대학 농업 경제학 교수로 임용되어 다시금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이 동안 그는 보먼에게서 받은 만주 식민지대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1931년 *The Pioneer Belt in Manchuria with Special Emphasis on Korean*

30) Calum G. Turvey, op. cit., p. 45; 松本武祝, 앞의 글, 4-8쪽.

31) 松本武祝, 위의 글, 11쪽.

*Settlements*란 제목의 영문 보고서와 1932년 『만주와 조선인』이라는 저서를 출판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가 무기한 지연되자 IPR은 일체의 사업 관리 권한을 보먼에게 일임하고, 조속한 사업 착수를 독촉하게 되었다. 때마침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 윤산온(尹山溫, George Shannon McCune)이 그를 농학과장으로 초빙하면서, 1931년 3월 그는 조선으로 돌아와 현지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한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그는 1933년 봄 연구 결과를 IPR에 제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IPR은 난색을 보이며, 다른 기획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판을 연기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는 1935년 『조선농업론』과 1936년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로 각각 뒤늦게 출간되었다.³²⁾

이러한 추천과 선정 과정을 거친 후, IPR은 나름의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세 명의 연구자에게 관련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 우선 러싱 벅의 연구에 대한 IPR의 지원금은 1928년 1,700달러를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10,600달러로 늘어나더니, 1930년과 1931년에는 각각 15,000달러에 달하였다.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세에 접어들어 1932년과 1933년에는 동일하게 1만 달러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지원 마지막 해인 1934년에는 액수가 절반인 5,000달러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사업에만 7년간 총 67,300달러가 투입되었는데, 이는 IPR의 ‘식량 공급 - 인구 - 토지 이용’ 관련 기획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³³⁾ 이로부터 IPR 혹은 록펠러 재단이 중국에 가지는 관심과 시장으로서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

나스 시로시 역시 러싱 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28년부터 1933년까지 상당한 액수의 연구 자금을 IPR로부터 수령하였다. IPR은 1928년 ‘Land Utilization in Japan’ 연구 과제에 3,250달러의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다음 해에도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투입하였다. 1930년부터 기존 연구 과제에 720달러를 증액하는 동시에, 새로이 ‘Rural Social Life in Japan’이란 명목으로 1,500달러를 추가하여 총 5,470달러가 할당되었다. 이에 따라 1931년에

32) 김진영, 앞의 글, 21~23쪽.

33)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op. cit., pp. 55~60.

는 ‘Land Utilization in Japan’에 3,250달러, ‘Rural Social Life in Japan’에 1,500달러로 총합 4,750달러가 연구 사업 비용으로 쓰였다. 1932년부터 1933년까지 IPR은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매년 5,000달러씩 총 1만 달러 상당의 연구비를 그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나스 시로시의 연구에도 6년 동안 26,720달러, 관련 연구 분야 계획 총예산의 20%가 넘는 거금이 집행되었다.³⁴⁾ 이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의 최대 경쟁 세력이자 미래의 가상 적국으로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이훈구의 연구에 대한 원조는 다른 두 사업에 비하여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 약소한 수준에 머물렀다. IPR은 그의 조사 업무에 1930~1931년간 두 번 각 2,500달러씩 총 5,000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다.³⁵⁾ 시간과 자금의 압박을 받던 중, 그는 IPR과 미국지리학협회 측에 원고 제출 기한의 연장과 1,500달러 상당의 추가 사업비 지원 요청을 보냈다. 하지만 양 기관은 내부 검토 끝에 1931년 9월로 예정된 시한을 1933년 봄까지 연기하는 대신, 관련 논의 일체를 마무리 지었다.³⁶⁾

이처럼 이훈구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먼저 제3회 IPR 교토 총회에서 1930년 이후 진행되는 모든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2년 내 종결한다는 새로운 연구 정책 성명(Statement of Research

34) *Ibid.*

35) *Ibid.*

36) H K Lee to Holland (cc Bowman), September 21, 1931, AAGSL Bowman Collection, Folder Title; Lee, Hoon K., 1931-1933, 01-01, <https://collections.lib.uwm.edu/digital/collection/agsny/id/23241/rec/167>; Holland to H K Lee (CC Bowman), September 26, 1931, AAGSL Bowman Collection, Folder Title; Lee, Hoon K., 1931-1933, 01-03, <https://collections.lib.uwm.edu/digital/collection/agsny/id/23243/rec/167>; H K Lee to Bowman, October 26, 1931, AAGSL Bowman Collection, Folder Title; Lee, Hoon K., 1931-1933, 02-01, <https://collections.lib.uwm.edu/digital/collection/agsny/id/23245/rec/167>; Bowman to H K Lee, February 1, 1932, AAGSL Bowman Collection, Folder Title Lee, Hoon K., 1931-1933, 05-01, <https://collections.lib.uwm.edu/digital/collection/agsny/id/23249/rec/167>; Bowman to H K Lee, March 22, 1932, AAGSL Bowman Collection, Folder Title; Lee, Hoon K., 1931-1933, 07-01, <https://collections.lib.uwm.edu/digital/collection/agsny/id/23251/rec/167>; H K Lee to Bowman, March 10, 1933, AAGSL Bowman Collection, Folder Title; Lee, Hoon K., 1931-1933, 14-01, <https://collections.lib.uwm.edu/digital/collection/agsny/id/23259/rec/167>; Bowman to H K Lee, March 29, 1933, AAGSL Bowman Collection, Folder Title; Lee, Hoon K., 1931-1933, 16-01, <https://collections.lib.uwm.edu/digital/collection/agsny/id/23264/rec/167>.

Policy)이 채택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³⁷⁾ 물론 러싱 벽과 나스 시로시의 연구는 예외로 인정받았지만 IPR 내부에서도 사안별 편중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일괄 적용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다른 요구 사항이 완전히 묵살된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일본제국의 식민지로서 조선에 가지는 서구권의 상대적 무관심이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라는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본다면, 식민지 조선의 토지 이용 조사 연구 명목으로 집행된 비용은 비교 대상인 기타 환태평양 국가에서 실시된 동종 혹은 유사 부류의 사업비에 비하여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었다. 예컨대 호주 및 뉴질랜드의 토지 이용 조사 연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각각 2,250달러(1932년 1,500달러+1933년 750달러)와 4,500달러(1930년 2,000달러+1931년 2,000달러+1933년 500달러)로 조선보다도 소액이었다. 반면 동일 기획 내 분과 주제에 해당하는 필리핀의 인구 재분배 관련 연구 사업에는 총 5,500달러(1932년 2,500달러+1933년 2,500달러+1935년 500달러)가 투입되었고, 동아시아 근방의 농산물 소비와 환태평양 지역의 농업 경영 추세 변화에 관한 연구 사업 역시 1928년 한 해에 7,500달러씩 일회성 지출이 행해지면서 비교적 많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³⁸⁾ 이처럼 사업 종류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발생한 차이로부터 IPR의 ‘식량 공급 - 인구 - 토지 이용’ 전체 사업 부문 내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상이 절대적 수준에서 낮다거나 과소평가 되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3. 한·중·일 토지 이용 조사 연구의 보편성 : 지식정보, 문법, 국가사회

이제 한·중·일 삼국 연구의 목적 및 의의에 관하여 저서별 주장과 주관

37) 松本武祝, 앞의 글, 14쪽.

38) 松本武祝, 위의 글, 7쪽.

부서인 IPR의 평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겠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 이하에서는 각 연구의 공통된 수렴 지점과 개별적 특성이 발산되는 지점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삼국의 연구 과제는 공통적으로 IPR의 자금 지원과 그에 따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설정한 동아시아 지역학 자료 구축이라는 연구 사업 본연의 목적이나 계획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동시에 엄밀한 통계 자료의 생산이라는 가치중립적 행위는 대상 지역 각 국가사회 내부적으로 최신 정보에 대한 갈증을 채워 줄 한 방도로써 이해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구 과제는 비록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각국 민관기관의 상당한 지원 아래 수행되었다는 일치된 특성을 보였다. 또한 해당 사업은 한·중·일이 포함된 세계 각지의 토지 이용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기획된 산물이므로, 상호 소통과 교차 검증이 가능한 공통의 언어 및 체제를 갖춰야 했다. 이러한 점은 미국식 사회과학의 학술적 문법을 공유하는 연구공동체의 일원이 사업의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담보될 수 있었다. 물론 기본 사항을 충족하는 한에서, 나머지 연구의 구체적인 전개 방향은 지역별 특성 및 연구자 개인의 자체적인 지향에 따라 다양하게 발산할 여지 또한 존재하였다.

먼저 주목할 점은 동아시아 토지 이용에 관한 과학적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지식정보 생산이라는 공통 기획으로서의 성격이다. 사실 러싱 벽의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2장에서 밝힌 ‘최초의 과학적이며 포괄적인 표본 조사’라는 학술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는 곧 동아시아에서의 기초 정보 생산과 축적이라는 연구 자금 후원자인 IPR 및 록펠러 재단의 기본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특히나 1930년 출간된 *Chinese Farm Economy*에 비하여 *Land Utilization in China*는 비록 당시 내전과 자연재해로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적 제약에도 불구하고³⁹⁾ 상당한 지역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중국 농업 경제 분야에 관한 자료 수준의 양적·질적 확대 및 지역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Land Utilization in China*는 당시 미국 정

39) *Ibid.*, pp. 46~47.

· 재계가 절실히 요구하던 동아시아 지역 정보의 생산 과제에 있어 중요한 성과물 중 하나였다.

저자는 연구의 목적으로 총 3가지를 들고 있다. 연구 과제의 첫 번째 목표로 러싱 박은 토지 이용 조사 방법론의 훈련 과정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는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서, 들어가는 지역학 수요에 맞춰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당시 미국 사회 일반의 목적과 조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그는 국내적 차원에서 이번 연구가 중국 농업의 향상과 국가 농업 정책의 기초를 위한 지식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1930년대 지역학의 맥락과 연동된 지식 생산의 문제는 마지막 셋째 연구 목적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즉 그는 국외적 차원에서 이 연구가 중국의 복리(Welfare)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중국의 토지 이용, 식량, 인구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⁴⁰⁾

이런 점에서 1929년 나스 시로시의 연구 활동 또한 애초 설정된 목표 궤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두 저서의 전체적인 구성 및 편제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양자 모두 분석 방법과 순서에 있어서 농업 생산관계의 물질적 조건을 먼저 다루고, 인간의 의식적 활동에 따른 토지 이용의 다양한 형태에 관하여 고찰하는 구조를 공유한다. 이렇듯 각 연구는 토지 이용에 관한 충실한 과학적 기초 지식의 생산과 제공이라는 IPR 및 록펠러 재단의 공통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 그의 1929년 중간 보고서는 물론 ‘예비 조사’라는 부제를 단 1941년의 후속 연구 역시, 저자 스스로 인정하듯 문제점이 명확한 불완전한 이정표였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IPR은 이러한 사소한 결점보다도, 일본 농촌 경제 및 농업의 실상을 서구 사회에 소개하는 희귀한 시도라는 점에 한층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만주와 조선에서 수행된 토지 이용 조사 사업은 득이하게도 미국지리학협회에 의한 위촉이란 예외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IPR - 미국지

40) John Lossing Buck, op. cit., pp. vii~viii.

41) “過去に書いた自分の書物はすべて不満足である。できればみんな書き改めたい。”, 大竹啓介, 앞의 글, 51쪽.

리학협회 - 이훈구'로 이어지는 일종의 특수 고용 형태는 일반적으로 열악한 계약 조건 혹은 상부의 직접적인 구속이나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론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가? 실제 이훈구는 자신의 저서에서 러싱 백의 *Land Utilization in China*가 제시한 기본적인 현지 조사 방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⁴²⁾ 애초부터 그가 콘들리프로부터 전달받은 연구 계획서에는 동아시아 삼국의 소농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비교 연구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그 또한 방법론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두 저자와 미국 농무성 농업 경제국의 조사 용지에 근거하여 자체 설문지 작성에 나섰다.⁴³⁾ 이처럼 만주와 조선의 '사례' 연구는 중국 및 일본의 '표준' 연구에 강하게 긴박 된 채, 지식정보 생산 과정에서 다른 두 곳보다 좀 더 엄격한 품질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만선 지역 토지 이용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고려하여, 양기관은 연구 방향 및 성격에 관한 개입을 시도하였다. 이훈구가 지역적으로는 무관하지만 지리적으로 유사한 북미대평원(Great Plains)의 관련 연구를 참조하고, 콘들리프의 후임이자 새로운 IPR의 연구 책임자인 윌리엄 홀랜드(William L. Holland)에게 보낸 사업 준비 상황에 관한 서면 보고에서 협회 인사인 요르그(W. L. G. Joerg)의 승인 하에 조사표를 작성하였다고 언급한 이유 역시 바로 이러한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미국지리학협회는 예전부터 IPR의 토지 이용 조사와 자신의 개척(식민)지대 연구를 결부시키고자 노력하였다.⁴⁴⁾ 더군다나 협회장인 보먼은 록펠러 재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국 외교협회(CFR)의 거물급 인사 중 한 명으로서, 미국 독점자본의 대외 팽창을 적극 옹호하는 팽창주의 이론가로 명성이 높았다.⁴⁵⁾ 따라서 보먼의 촉탁은 애초부터 두 기관의 연결 지점으로써 만주조선의 연구 사업을 활용하려는 의도된 접근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조선과 만주의 토지 이용에 관한 두 권의 책은 록펠러 재단의

42)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op. cit., p. 10.

43) 이훈구,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 7~11쪽.

44) H K Lee to Holland (cc Bowman), September 21, 1931, *Ibid*, 松本武祝, 앞의 글, 20쪽.

45) 김진영, 앞의 글, 각주 71번 참조.

지역학적 관심이 일차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IPR의 나머지 동아시아 기획 연구와 유사한 사회과학적 분석 방식 및 편제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훈구는 러싱 벽과 나스 시로시의 연구 그리고 사업 발주처인 IPR 및 미국지리학협회로부터 주제나 방법론상 강한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비록 구체적인 장절 구성은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IPR이나 록펠러 재단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적과 인종이 다른 세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한·중·일 지역 조사는 이상과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 중 하나는 우선 미국식 사회과학 연구공동체 일원이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싱 벽은 1922~25년간 중국 7개 지방 17개 지역 2,866개 농장의 통계 자료 분석 결과를 1930년 *Chinese Farm Economy*라는 책으로 냈고, 이를 수정 보완한 후 1933년 코넬대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바 있다.⁴⁶⁾

다음으로 비록 도쿄제국대학 출신 교수로서 정통 국내파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IPR의 중역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⁴⁷⁾ 나스 시로시 역시 그의 사회적 위치와 연구 사업 조직 내 지위로 미루어 보아 미국 중심의 서구 사회과학계 연구 동향 및 방법론에 해박하였음은 여러 정황상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훈구는 1924년 도쿄제국대학 농학부에서 나스 시로시의 제자로 수학한 다음, 1929년 한국의 토지 제도사 연구로 위스콘신대학 철학박사(농업경제학)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⁴⁸⁾ 그야말로 미국과 일본 사회과학계의 수혜를 동시에 입은 중간자로서 양자의 학문적 문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당대 소수의 전문가 중 한 명이었던 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

46) Edited by James Terry White, *Ibid.* Calum G. Turvey, *Ibid.*

47) 나스 시로시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IPR 국제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후 어느 시점에서 동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松本武祝, 앞의 글, 8쪽;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PREFACE", *Ibid.*

48) 김진영, 앞의 글; 「군정청 사령」, 『민중일보』, 1945년 10월 28일;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조선일보』, 1948년 5월 14일; 「단대에 2부제 인가 재단 확립코 신축」, 『경향신문』, 1955년 3월 7일; 「이씨를 성대 총장에」, 『동아일보』, 1956년 2월 22일; 「참의원 개표 58명 중 45명 확정 재선관계 제외 참의원 개표 일단락」, 『동아일보』, 1960년 8월 3일; 「인사」, 『경향신문』, 1961년 6월 14일;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조선일보 사람들-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중앙, 2004, 338쪽.

역학 구축 사업의 책임자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공동된 실마리는 개별 연구 사업을 관통하는 해당 국가사회의 광범위한 지원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규모 통계 조사로서 러싱 벅의 연구 활동은 그 자체로 국가 정책에 속하는 대형 기획 사업이었고, 그에 따라 국가사회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연구는 제2차 IPR 총회에서 미국 농업 경제국(USDA)이 먼저 제안하여 시작되었고, IPR의 연구 자금과는 별도로 국가경제위원회(NEC) 및 중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총 3만 5천 위안의 출판 비용을 지원받았다.⁴⁹⁾ 이외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다방면의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인적·물적 후원을 제공받았음이 저서 앞부분에 명시되어 있다.⁵⁰⁾ 이처럼 각계각층의 도움 끝에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 책임자 개인에게도 훈장 수훈이라는 명예를 가져다줄 만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성취로 인식되었다. 이로부터 그의 연구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준)국책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일본 사회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나스 시로시의 일본 토지 이용 조사 연구 역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 서문의 감사 인사에 따르면 그는 농무성과 정부 농업시험장 그리고 관변단체인 지역 농회로부터 각종 정보 및 설문 조사에 있어 상당한 편의 혜택을 입었다. 동시에 이 모든 연구를 가능케 한 원동력으로써 IPR과 총책임자인 콘들리프에 대한 사의 표명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함은 물론이다.⁵¹⁾ 그는 어떻게 동아시아 패권 경쟁의 두 축인 미국과 일본 양측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연구에 나설 수 있었을까? 이는 그의 연구 성과가 가지는 이중적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동아시아 지식정보 생산이라는 미국의 지역학적 관심 뿐만 아니라, 제국-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사회과학 연구라고 하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특히 후자의 측면에서 그는 본국의 군국주의적 팽창에 호응하여, 제국 내 농촌 사회 개량 운동과 점령지로의 이

49) John Lossing Buck, op. cit., "PREFACE", p. vii.

50) *Ibid.*, "ACKNOWLEDGMENT", pp. xii-xvi;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bid.*, pp. 9-10.

51) *Ibid.*, p. ii.

민 정책을 고안한 설계자로 활약하였다.⁵²⁾ 이렇듯 그는 당시 일본이 자행하는 주변국에 대한 식민 지배 혹은 경제 침탈 현실을 외면하고, 이를 그저 자국의 농촌 과잉 인구 해소 및 산업 개발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가피한 희생 정도로 합리화하는 전도된 인식에 함몰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시 협력 문제가 불거져 그는 전후 일시적으로 모든 공직에서 추방당하지만 1950년대 말 일본의 지배 질서가 재건되는 와중에 복권 조처되었고, 1965년에는 훈이등육일중광장(勳二等旭日重光章) 훈장을 받기까지 하였다.⁵³⁾

반면 이훈구는 식민 본국인 일본제국이나 식민지 조선 사회로부터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1926년 7월 미국 감리교청년회 교육부 추천으로 시작된 도미 유학에서부터 남경 금릉대학과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기반을 마련한 것이나 만주 식민(개척)지대 연구 당시 하얼빈 주재 조선 감리교 선교부 농촌부의 소개로 재만조선인 이주 농가 201호의 실태 조사에 나설 수 있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⁵⁴⁾ 대신 그는 국내외의 기독교 계열의 농촌운동 세력으로부터 필요한 자원과 협조를 구하였다.⁵⁵⁾

결과적으로 IPR의 조선 토지 이용 조사 사업은 책임자였던 이훈구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일례로 1935년 6월 29일 열린 『조선농업론』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는 이번 연구의 성과로 1,500여 농가에서 직접 과학적 실태 조사를 시행한 점, 그리고 IPR이라는 세계적인 기구에 중요 보고서로 채택됨과 동시에 미국에서도 단행본으로 출판된 점을 지적하였다.⁵⁶⁾ 세계 3대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명망 높은 기관⁵⁷⁾에서 식민지인

52) 중일전쟁 발발 이후 나스 시로시는 베이징 시내 4개 국립대학을 통합하여 설립된 '베이징 대학'의 부속 농학원 명예교수로 부임하였고, 전쟁 말기에는 왕징위 국민정부의 전국경제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53) 大竹啓介, 앞의 글, 50쪽; 松本武祝, 앞의 글, 18-19쪽.

54) 김진영, 앞의 글, 7, 22쪽; 이훈구, 『만주와 조선인』, 평양 숭실전문학교경제학연구소, 1932, 3쪽.

55)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이훈구와 미국 기독교계 사이의 연결망은 IPR의 공식 사업 일정이 마무리된 1933년 봄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1934년 미국 뉴욕 소재 신역사회(新歷史會)가 주최하고 존 듀이를 필두로 한 당시 세계적 학자와 정치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논문 현상 공모전의 조선 책임자로 선정되었다. 「세계가 듣기 원하는 조선 청년의 외치는 소리 우리 조선 청년의 사상과 문장을 신역사회가 현상 모집」, 『동아일보』, 1934년 2월 21일.

56) 「조선농업론 출판기념회」, 『매일신보』, 1935년 7월 1일.

57) 김경일, 앞의 글, 305-306쪽.

이 거둔 탁월한 학문적 성취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의 지식인과 대중에게 전파되었고, 이러한 활동 경력은 그에게 공인된 농업(농촌) 전문가라는 권위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이훈구는 IPR의 지역 연구 조사 책임자로 선정될 수 있었고, 이는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유일무이한 사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두 연구 사업과 비교한다면 사업 선정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정과 평등을 지향하는 연구자 사회 내부에서조차도 일종의 식민지적 제약 혹은 편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사업 수행에 있어 당시 국가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기본 전제가 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서는 각국이 처한 상황 조건과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국가적 난제였던 제국 내 인구-식량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관민이 합심하여 사업단 측에 전면적인 지원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한편 중국의 경우 사업이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사회개혁에 대한 내부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사회주의 세력(공산당)을 제외한 국민당 정부와의 부분적인 관민 합작 형태를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은 주요 정파 세력 간 농촌/농민의 전유를 향한 투쟁이 전개되면서, 조선총독부-민족주의-사회주의로 대별되는 사회 집단 중 특히 기독교-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하는 민간 영역에서의 운동(론)의 형태를 띠었다.⁵⁸⁾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 세계의 조건을 본인의 연구에 최대한 접목하여, 기독교-민족주의 계열 농촌운동 세력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이 점에서 그의 연구가 지니는 학술 과학적 의의뿐만 아니라 식민지 사회 개선(개혁)과 그것의 활용 방안에 관한 당대 여론의 관심 역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동아시아 사회에서 유통되던 농업 중심 사회개혁론의 보편성이 관철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당대 한·중·일 농업이 직면하

58) 이훈구가 주장한 자본주의적 사회개혁론(운동)에 대하여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 논자 중 한 명으로서 가장 노골적인 비판을 가한 인물이 바로 인정식이다. 그의 주장에 관해서는 김진영, 앞의 글, 26~27, 42쪽 참고.

고 있던 공동 문제였던 토지 영세성 극복과 농민 교육 수준 향상에 대한 러싱 백의 고민은 비교사적 맥락에서 일본⁵⁹⁾과 조선⁶⁰⁾이라는 서로 다른 상황 조건 아래 공유되는 측면이 있었다. 초기 민간 차원의 교육계몽 - 협동조합운동론에서 출발하여 1930년대 중반 이후 관민 협력의 길로 수렴하는 세 명의 행보상 유사성은 이러한 상호 작용 양상의 실례라고 볼 수 있다. 즉 연구 사업 자금의 출처인 미국의 일차적 이해관계와 더불어, 연구 대상 지역의 산업 개발 요청 및 연구자의 개인적 지향이 토지 이용 조사라는 외피를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삼국의 연구자가 고안한 사회개혁론(운동)은 근본적인 개혁에 따른 기존 체제의 파괴 혹은 재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성 권력과 융합하여 그것의 개선 및 항구적 유지를 도모하는 쪽에 가까웠다. 따라서 신사조인 사회주의의 도전에 맞선 현실 자본주의의 응전이란 당대 국내의 정세상 이러한 사상적 조류는 자연스럽게 반공주의적 경향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러한 이념적 성향이 IPR과의 협업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아마도 당시 소련까지 회원국으로 참가할 만큼 개방된 순수 민간 학술단체로서 IPR이 표방하는 정체성과 이성에 입각한 과학적 판단을 중시하는 이상주의적 가치관이 일종의 규약처럼 구성원에게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냉전 체제가 본격화한 이후 세 명은 모두 학자-관료로서 일제히 반공 국가 건설 및 연대 활동에 전력하였고, 이후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범국가적 반공·우익 개혁 세력의 일부분을 이루게 되었다.⁶¹⁾ 반면 IPR은 아시아 연구의 중심이 미국 주요 대학 내 신규 거점 센터

59) 일본 국립도서관센터에서 검색되는 전전 정식 출간된 나스 시로시의 저서 목록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는 당대 일본 농촌 사회, 농업 경제, 소작, 인구, 토지 이용, 농정, 교육 계몽(국민고등학교), 협동조합 등 농촌농업 문제 해결 관련 제반 주제 주제에 폭넓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iss.ndl.go.jp/books?ar=4e1f&except_repository_nos%5B%5D=R100000038&except_repository_nos%5B%5D=R100000049&except_repository_nos%5B%5D=R100000073&filters%5B%5D=1_1&page=1&rft.au=%E9%82%A3%E9%A0%68%E7%9A%93&search_mode=advanced, 2022-12-24 검색.

60) 이훈구의 식민지 조선 농촌농업개혁론의 전개 양상은 김진영(2020) 참고.

61) Edited by James Terry White, *Ibid.* Calum G. Turvey, op. cit., pp. 33~54; 大竹啓介, 앞의 글, p. 50; "Report of the Conference of FAO Twelfth Session", Rome, 16 November - 5 December

로 이동하는 구조적 위기와 정계 차원에서 제기되는 공산주의 혐의 논란을 겪으며 1960년 결국 자진 해산하였다.⁶²⁾

4. 한·중·일 토지 이용 조사 연구의 특수성 : 공간과 주체

물론 한·중·일 연구자의 지향이 유사하였더라도, 담론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행위는 스스로가 처한 상황 배경 및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제국(주의 국가) 출신 사이에서도 다른 목적의식이 충돌할 수 있으며, 제국-(반)식민지 지역 간 위계에서 오는 현실적 차별 혹은 발전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 차원의 교육계몽운동론-협동조합조직론과 국가사회 차원의 적극적 개입 및 투자에 따른 중앙집권적 표준화로 대별되는 제안 중 삼국은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강조점이 약간 다른 특색도 보였다. 제국의 발전 수준이나 개인적 의도에 따라 사회 개혁의 방향 및 주체 설정에서 편차가 발생하였다. 이제부터 공통의 사회 개혁 지향이 다르게 발현되는 양상에 관하여 먼저 제국 간 차원에서 러싱 벽과 나스 시로시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연구자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의 팽창주의적 행보에 조용하는 현상 형태를 공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내

1963, <https://www.fao.org/3/x5571e/x5571e0q.htm#b,%20list%20of%20participants>; "Information Home & Abroad", *Asian Medical Journal* Vol. 8, No. 1, The Japan Medical Association, 1965, p. 66; Official Report(1965), "Japan Christian Medical Association", *The Japan Christian Yearbook 1965: A Survey of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During 1964*,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Japan, p. 307; "The Ramon Magsaysay awardees", <https://www.rmaward.asia/awardee/nasu-shiroshi>, 2022-12-23 검색; 「군정청 사령」, 『민중일보』, 1945년 10월 28일;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조선일보』, 1948년 5월 14일; 「참의원 개표 58명 중 45명 확정 재선관계 제외 참의원 개표 일단락」, 『동아일보』, 1960년 8월 3일.

62) Paul F. Hooper, *Ibid*; John N. Thomas, *Ibid*; W. L. Holland, edited by Paul F. Hooper, *Remembering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the memoirs of William L. Holland*, Ryukei Shyosha, 1995, pp. 65~75.

부 동력에 있어서는 차이점도 분명하였다. 먼저 외국인(미국)에 의한 타국(중국) 현지 조사를 가능케 한 일반적 차원의 해외 시장 확보용 지식정보 생산이라는 측면과 중국 농민의 현실 개선이라는 연구자 개인의 열정이 한편에 존재한다면, 다른 한편 보다 특화된 방향으로 제국 권역 내 인구 및 식량 문제 해결이란 자체 동기가 강조되는 측면이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러싱 벅이 추구한 연구 및 사회 참여 활동의 특색을 검토해보자. 그는 1910년대 농촌 선교사로 들어온 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30년 이상을 중국의 농촌 사회 개혁에 헌신한 인물이었다. 당시 그는 중국 농업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인 동시에, 이렇게 생산된 기초 자료에 근거하여 현실 개량 운동에 나서는 활동가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활동 영역은 초기 민간 부문의 자조적 대책 마련의 수준에서, 점차 국가사회의 전면적 개입과 제도 개선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학 협력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⁶³⁾ 본문의 총론 격에 해당하는 제1절 중국의 농업(Chinese Agriculture)은 향후 서술될 전체 분석 결과를 요약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과학적 실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 중국 농업상 문제점에 대한 16개 조항의 해결책을 제시한다.⁶⁴⁾ 이로써 러싱 벅은 자신의 연구가 중국 농업의 진보와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 그리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랐다.

이렇듯 러싱 벅이 중국 농업 경제의 구조적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종종 지면에서 중국 농민이 감내하는 비참한 삶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표출하였던 만큼,⁶⁵⁾ 그는 자신이 매일 직면하는 상황

63) Calum G. Turvey, op. cit., pp. 35~51.

64) 1. 홍수 예방 통계 사업, 2. 토지 개량 사업, 3. 토양 보전 사업, 4. 산림 녹화 사업, 5. 경자유전 원칙에 의한 토지개혁과 소유권 확립을 위한 토지조사사업, 6. 통합 개선 특별시범지구 설치, 7. 농법실험장 및 농업교육기관, 8. 농업 기술 개선, 9.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에 의 보조금 지급, 10. 농촌 신용 제도, 11. 농산물 규격과 등급 설정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 12. 순수식량법을 위시한 농업법, 13. 생산자-소비자 농업협동조합 제도, 14. 지역별 농작물 보고 제도, 15. 고속도로 및 철도 확충, 16. 효율적 농장 경영을 위한 상담자문사업. John Lossing Buck, op. cit., pp. 21~22.

65) *Ibid.*, p. 50

에 대하여 일종의 인도주의적 책임감을 느꼈을 수 있다. 물론 중국 농민의 낭비와 무지가 오늘날의 비극을 자초하였다고 지적하는 언설과, 시혜적 조치에 따른 현실 개선을 모색하는 그의 행동으로부터 백인의 책무(White man's Burden)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진 제국주의 국가 시민의 입장에 따른 오리엔탈리즘적인 욕망 역시 읽을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⁶⁶⁾

기본적으로 러싱 백이 외국인으로서 중국 지역 사회 및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관민 협력의 문제의식 역시 193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제기될 수 있었던 반면, 나스 시로시는 본국 출신 엘리트 학자라는 이점을 살려 비교적 초기부터 관 중심의 일본 농업 개혁에 주력하였다.

1920년대부터 나스 시로시의 연구에는 당시 일본 농업이 직면하고 있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도입부에서 그는 인구-식량 공급 간 상호 발전적 균형이라는 시각에서, 오늘날 식량 부족 및 수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증산 방안을 본문의 핵심 논점으로 제기한다. 이에 따라 그는 탐구 대상으로 일본 농업의 제반 조건, 좀 더 구체적으로 ①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농업 구조, ② 실제 경작지의 정확한 비율 및 착취율, ③ 집약 농업의 생산력과 수익성 및 인구 부양력 등 세 가지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근미래 토지 이용의 조건 및 개선 사항에 관한 전망은 결론 부분에서 다루어진다.⁶⁷⁾

이어 제6장의 3개 절에서 그는 토지 생산력과 인구 간의 상관관계를 해명함으로써, 농공부문이 병진하는 건전한 일본 자본주의 성장의 가능성을 학술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이미 지난 1918년 극심한 쌀 소동을 겪어 본 입장에서 식량 확보 문제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 일본의 사활이 달린 안보의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현행 인구 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식량 산출의 정도를 예측하는 문제는 당대 일본 사회 및 농업경제학계의 주요 화두였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66) 松本武祝, 앞의 글, 16쪽.

67) Shiroshi Nasu, *Land Utilization in Japan*,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29, pp. 1-3.

이에 따라 정책적 관심과 학술적 제언은 자연스레 식량 확보 방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생산 이후의 상품화나 시장 유통은 부차적인 영역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제국의 지식인이었던 그는 식량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제국의 판도 내에 있는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토지 이용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조선의 토지 이용 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조선에서의 미국 증산 방안(Plan to increase production of rice in Korea)’을 도출하는 현실적 문제로 귀결된다.⁶⁸⁾ 식량 공급 기지로써 식민지 개발에 기대를 거는 그의 시각은 일본제국의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된 산미 증식 계획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스 시로시가 전망한 일본 농업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결론에서 토지의 식량 생산력과 그에 따른 인구 부양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였는데, 양자 모두 현상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선 전자의 경우 현재의 식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혹은 외국으로부터의 쌀 수입이 필요하였지만, 이 경우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범람하여 쌀농사 위주인 일본 농업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그는 식량 확보와 시장 보호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 제한 등의 후속 대책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식량 생산 외 토지 생산물의 경제적 활용을 통한 인구 부양력 확충이란 고민이 담겨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주력 산업인 면공업의 원료가 되는 생사마저 중국산 상품의 저가 공세 그리고 대체재인 인견의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에 따라 국제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하였다. 더군다나 당시 일본 농업 부문의 구조적 한계상 농법의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나 추가적인 경지 개발의 여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의 인구 부양력 감소에 따른 상대적 과잉 인구의 발생이 예측되었다.⁶⁹⁾

한편 1939년 일본이 IPR에서 탈퇴한 이후로⁷⁰⁾ 양자 간 공식적 관계가 단

68) *Ibid.*, pp. 230~232.

69) *Ibid.*, pp. 240~262.

절되었음에도, 나스 시로시는 과거 연구비 지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돌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 마침내 IPR이 공식적으로 인증한 *Land Utilization of Japan*의 개정 증보판이 출간되었다. 당시 저서에서 그는 1929년의 비관적인 논조에서 벗어나,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사회의 강력한 개입과 관민 차원의 전면적 협력을 통하여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농업 경제의 재건에 관한 세 방향의 대안을 모색한다. 먼저 농촌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① 협동농장 결성을 통한 파편화된 농업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 ② 마을 기업의 활성화에 따른 추가 소득 확보 및 잉여 노동의 흡수 그리고 원자재 수요 창출, ③ 공유 수면 및 삼림 자원의 관리 개선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혜택 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대륙 침략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인 만주 이민이 근본적인 농촌 과잉 인구 배출 대책이자 철도 건설 노동자 집단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장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량 및 원자재의 수입 대체를 목적으로 한 제국 내 농업 생산 분업화 전략이 언급된다.⁷⁰⁾

이렇듯 상호 유기적인 관민 일체를 지향하는 나스 시로시의 해법은 러싱 벽의 16가지 제언과 여러 면에서 겹친다. 마찬가지로 두 명은 자신의 탁월한 학술적 분석 결과를 현실 정치 영역에 투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장개석과 왕정위의 경제 고문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점에서도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발견되는 형태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분명한 차이점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우선 동기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신분인 러싱 벽이 중국의 직접적 이해관계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조국과 주 활동 무대 간 교섭의 매개체 역할에 치중하였다면, 나스 시로시는 제국의 학자·관료로서 국가 시책 달성 및 제국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 의식을 깊이 내면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싱 벽이 농업 경제 일반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면, 식량·인구 전문가로서 나스 시로시는 이보다는 좀 더 특화된 분야인 제국 내 절대적/상대적

70) 고정휴, 앞의 글, 2006, 134쪽.

71) *Ibid.*, pp. 165~168.

과잉 인구의 배출 겸 해소 문제에 천착하였다.

다음으로 제국과 (반)식민지 간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에 관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먼저 미국인에 의해 수행된 ‘기념비적인’ 중국 토지 이용 조사의 문제점을 논한 뒤, 미국 유학생 출신의 일본 식민지 지식인이 깊어졌던 한계 및 그것의 극복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과 조선은 전간기 피지배-피압박 민족으로서 처지를 공유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정부가 존재하는 반(半)식민지와 주권이 박탈된 채 외부 통치 세력에게 일정 부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라는 본질적인 조건상 차이를 노정하고 있었다. 특히 후자는 사회 개혁의 주체와 방법론 설정에 관하여 양자를 가르는 핵심으로 기능하였다.

먼저 살펴볼 1920~30년대 중국 농업 및 관련 연구의 현실을 둘러싼 당시 IPR의 인식은 1936년 자체적으로 발간한 9개년 연구 사업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IPR 혹은 러싱 벅은 스스로를 연구상 불모지이자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중국 농업농촌사회에 선의로 참여하는 외부인 개척자로 상정하고, 본인의 사회과학적 연구조사 과정에서 관명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당대 중국 현실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은 미국 중심의 사회과학적 지식 권력의 장벽 앞에 구조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의도나 목적을 직접 발화하지 못하는 객체로 전락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중국에서는 대규모 통계 조사를 수행할 훈련된 조사관은 물론, 일상적인 계산이나 편집 혹은 교정 등을 담당할 보조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요인으로 IPR은 사회과학 연구 활동과 그 결과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만연해 있었던 당시 중국의 문화 정서적 상황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 없이 통계 조사 사업을 사회 전반에 급속히 보급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1930년 이후 중국 공식 관계 기관이 수집한 농업 통계 자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생산된 정보 중 부정확하거나 인구수처럼 중요한 항목이 빠지는 등 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편, 측정 단위가 지역별로 제각각이라 국제 표준으

로 재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다. 결국 대부분의 통계 수치를 처음부터 재작성해야 함에도, 비협조적인 중국 농민의 성향은 자료 수집에 많은 애로사항을 낳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증첩되어 중국에서의 연구 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난이도뿐만 아니라 비용의 측면에서 거대한 난관을 선사하였다. 이는 기존에 구축된 지역 농업 통계 조직을 연구상 활용할 수 있었던 일본의 상황과 명확히 대조되었다.⁷²⁾

이렇듯 사회과학적 조사 연구 기반이 전무하였던 중국의 열악한 환경 탓에 자국의 통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책임자는 IPR이 임명한 외국인 러싱 벅이 맡게 되었다. 비록 다수의 중국인이 다양한 사업 분야에 참여하였지만 대부분 기술 보조원이나 지역 조사원 등 하급 실무자로 고용되었고, 중요 직책이나 주요 저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전체 15장 중 중국인이 공저자라라도 참여한 부분은 인구 및 인구 동태 통계 조사 감독이었던 Chi-ming Chiao가 쓴 13장(인구)과 전체 사업 감독 대행 겸 식량 소비 조사 감독이었던 Wen-yuh Swen의 14장(영양) 단 두 장에 불과하였다.⁷³⁾

결국 자체적인 연구 역량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던 당대 중국의 현실적 한계로 말미암아, IPR은 중국 지역 토지 이용 조사의 책임자로 십여 년간 현지에서 활동한 미국인 전문가를 섭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조건상 합리적인 결정임에는 분명하지만, 불가피하게 자국민의 의사가 외부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점은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연구 및 조사 과정에서 미국식 사회과학 연구공동체 일원의 선발과 문법의 일치라는 측면이 고려되어, 당시 중국인 연구자에 대한 일종의 선별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인 공저자 두 명은 모두 러싱 벅의 지도 아래 금릉대학에서 수학한 후 미국으로 유학, 그곳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⁷⁴⁾

72)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bid*, pp. 8-9.

73) John Lossing Buck, PERSONNEL; p. xviii.

74) Wen-yuh Swen는 1930년 스탠포드대(식량 소비 전공)에서, Chi-ming Chiao는 1933년 코넬대(농촌사회학 전공)에서 각각 학위 과정을 마쳤다. John Lossing Buck, "Develop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Nanking, China, 1926-1946", *Cornell International Agricultural*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의 농업농촌사회 연구 사업이 전적으로 미국(인)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비록 서구 열강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있었음에도, 중국 대륙에는 여전히 자체 정부가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싱 백 역시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고, 중국 국민당 정부를 주요 사업 대상자로 고려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16개조 제안은 국가사회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실행되기 어려운 사실상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기획안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그는 중국 정부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였다. 실제로 그는 미국 재무부 통화 고문 및 재중 재무부 대표(1934~1935)와 미국 농무부 대외 농업 협력국(Office of Foreign Relations) 기술 고문(1945~1946)을 역임하며 미중 양국의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고, 중국 국민당 재정부 고문(1939) 및 국립농공학공사(National Agricultural Engineering Corporation) 수석 경제학자(1944~1946) 직을 수행하며 중국 정부의 정책 개발 혹은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⁷⁵⁾ 이로써 그는 중국 농업농촌사회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농학자 이훈구가 수행한 연구는 IPR의 공통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모국의 자본주의적 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연구자 본인의 목적의식이 반영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비하면 조선의 토지 이용 관계 자체는 미국(자본) 입장에서 부수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해당 연구 역시 IPR의 전체 사업에서의 비중을 따진다면 주변적 층위에 머물렀다. 이훈구가 요청한 마감 기한 연장 과 연구비 증액 요구가 선별 수용된 사정 역시 IPR이 조선 연구에 대하여 가지는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조국의 저개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의 과학적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에 매진하였다. 초창기 그는 기독교-민족주의 계열의 농촌운동 세력과 협력하여 민간 차원의 사회 개혁 운동을 추진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한

Development Bulletin 25, Cornell University, 1974, pp. 44~45.

75) Edited James Terry White, *Ibid*, Calum G. Turvey, op. cit., pp. 33~54.

계에 직면하고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돌파구로서 식민 권력이 주도하는 농공병진의 이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훈구의 연구에서 보다 주목할 점은 러싱 벽의 연구에 대비되는 그의 차별화된 문제의식과 지향이 책의 편제 및 내용 구성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책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의 연구는 단순히 ‘조선의 토지 이용(Land Utilization in Korea)’ 현황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책에는 식민지 조선의 ‘농촌 경제(Rural Economy)’를 철저히 학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식민지적 제약을 극복하고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러싱 벽이 농경지 이용 현황에 천착한 것과 달리, 그의 저서는 모든 형태의 토지 이용 현황뿐만 아니라 각종 천연자원 분포 및 상공업 조건, 교통 통신, 심지어 교육 기관의 문제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이훈구의 저서에서는 식민지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착취 문제가 노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러싱 벽과 다른 그의 연구가 지닌 특수한 역사적 맥락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양상은 동일 저서의 국영문본 간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두 책은 기본적으로 편제나 내용상 같은 구성을 공유한다. 그런데도 『조선농업론』에서는 *Land Utilization in Korea*의 마지막 두 장이 완전히 빠져 있다. 제11장은 조선인의 미곡 소비량 및 1년 생활비 지출을 통계로 제시하면서, 일제의 선전과 달리 대다수 농가의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 자체가 위기에 봉착한 사실을 암울하게 지적하고 있다. 제12장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농업 이민을 가장한 일제의 토지 침탈 사업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에 관하여 상술하고 있다.⁷⁶⁾

이처럼 이훈구는 ‘조선의 근대화’라는 일제의 허상에 맞서 엄밀한 사회과학적 통계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현실 문제의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문제의식은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러싱

76) Hoon K, Lee,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6, pp. 274~289.

벽의 관점을 변용한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그는 제4장에서 기업가이자 임금 노동자이며 동시에 자본가의 속성을 지닌 조선 소작농의 존재 양식에 관하여 다방면으로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존하는 소작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농업 이민에 따른 토지 침탈 문제 역시 러싱 벽의 연구에서는 다루이지 않은 주제 중 하나였다.

러싱 벽은 총론에서 연구의 분석 범위가 중국의 농경지 이용 특성 분석 및 평가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중국의 농업 생산 관계 일반이나 특히 소작, 계급 간 법적 차별, 고리대, 중간상인 착취 등 현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관련 내용은 현상 파악의 목적에서 실태 조사가 되고 있을 뿐이다.⁷⁷⁾ 반면 이훈구는 당대 조선 농업이 내포한 구조적 문제의 원인에 관하여 여러모로 분석한 뒤 가능한 실천적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싱 벽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⁷⁸⁾

『조선농업론』의 서문에서 언급되듯이 이훈구는 러싱 벽과 나스 시로시의 연구로부터 그 주제나 방법론상 강한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⁷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 문제에 대하여 날카롭게 인식한 가운데 책의 편제와 내용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사회 개혁적 지향을 분명하게 발산하고 있었다.

이훈구의 이러한 독자성은 록펠러 재단과의 첫 번째 협업인 만주의 식민(개척)지대 연구와 조선의 토지 이용 조사를 상호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Land Utilization in Korea*는 IPR이나 록펠러 재단이 원하는 기초적인 동아시아 시장 정보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향한 사회 개혁 방안의 모색이라는 성격 또한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사실 만주 이주민의 생산관계 및 각종의 사회·경제·교육 문제를 분석한 『만주와 조선인』에서 예비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7) John Lossing Buck, op. cit., p. 1.

78) 김진영, 앞의 글, 28~29쪽.

79) 이훈구, 앞의 책, 7~11쪽.

동시에 『만주와 조선인』에서도 조선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분석이 주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5장에서 저자는 만주 이주 조선인 사회의 조직화 정도나 교육 수준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1930년대 민간 차원에서 조선 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추구한 교육계몽 및 협동조합 운동론과 맥이 닿는 것이다. 이렇듯 그의 두 저서는 공통적으로 단순한 농업 경제 연구의 차원을 넘어, 일제의 기만적 착취에 맞서 식민지 조선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의 성격이 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국은 물론 반(半)식민지와도 분명히 다른 주권이 완전히 사라진 식민지 조선의 현실 앞에서, 이훈구의 사회개혁론(운동)의 지향 역시 굴곡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현실 권력이 엄존하고 정치적 진출의 통로가 봉쇄된 가운데 1930년대 초중반 그는 기독교-민족주의 계열의 자장 속 민간 차원의 교육계몽 및 협동조합 운동에 매진하였지만, 저조한 사업 성과에 점차 본질적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0년대 중후반 때마침 전개된 일본 본국과 식민 권력의 일견 전향적인 사회사업 정책에 일말의 희망을 발견한 그는, 승전 폐교 사태 이후 새로이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총독부의 비판적 조언자로 나서게 된다. 이곳에서 그는 당시 식민 국가가 제시한 농공병진의 청사진에 호응하여, 관 주도의 개발사업과 그에 따라 산업화된 조선의 미래를 꿈꾸었다.⁸⁰⁾ 이로부터 당대 삼국의 토지 이용 조사 연구자가 표방하였던 일반적인 사회 개혁의 지향 속에 내포된, 목적 및 실천 전략상 분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진행된 IPR의 동아시아 삼국 토지 이용 조사는

80) 김진영, 앞의 글 참조

당시 한·중·일 사이에 존재하였던 중층적 이해관계 및 그것의 작동 기제에 관한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제국주의 열강 간 세력권 다툼의 와중에서도 지식정보 생산이라는 공통분모에 의하여 일협조하는 모습부터 제국-식민지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긴장 속 주도권 경쟁 그리고 학술적 문법 공유 여부를 중심으로 한 포섭과 배제의 동학까지, 국가-자본-개인의 층위에서 IPR의 연구 사업은 여러모로 문제적인 기획이었다.

한편 사업에 참여한 동시대 연구자 집단 역시 그 지향의 측면에서 다채로운 모습을 발산하고 있었다. 삼지는 공통적으로 자국(혹은 주거지)의 농촌 사회 개혁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학술운동 두 차원의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생산한 전문 사회과학 지식에 근거하여 관련 분야의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 및 권력 기관과의 협력을 추구하였다. 이로써 전간기 동아시아 농업 사회 개혁론(운동)의 동시대성이 관철되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공통의 기획 하에 유사한 지향을 가진 연구자가 모였음에도, 각자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그것의 실천은 한가지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았다. 각자가 소속된 공간적 위계에 따라 주체 선택의 전략상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인 선교사로서 처음 중국 농촌 사회와 대면한 러싱 벽은 초기 민간 영역의 자조적인 교육계몽-협동조합 운동에 따른 농민 생활 수준 개선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 보다 근본적인 사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하고 국가사회의 적극적 개입 및 투자를 촉구하는 동시에, 유기적인 관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하여 학자 겸 중국 국민당 정부 관료로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나스 시로시는 당대 일본 최고의 식량-인구 전문가이자 제국의 지식인으로서 시종일관 정부에 의한 정책적 해결을 중시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그는 제국 내 절대적/상대적 과잉 인구의 해소와 농업 부문의 권역별 분업화에 따른 조정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 정부의 농업-인구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제국의 판도로 새롭게 편입된 중국 대륙에서 국익을 위하여 직접

복무하는 길로 나아갔다.

이훈구는 식민지라는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민간이 주체가 된 조선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운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하였다. 평양숭실전문학교 농학과에 설치된 고등농사학원의 존재 그리고 동학과 기관지 『농민생활』에 발표된 조합회사론은 민간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계몽-협동조합 운동론의 완성형에 가까웠다. 하지만 다른 두 명처럼 그에게 정치적 진출은 허용되지 않았고, 점차 줄어드는 활동 공간 속 부진한 성과로 고민하던 중 언론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민족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식민 권력이 주체가 된 조선 본위 사회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비판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게 된다.

■ 참고문헌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민중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Archives of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Library [UWM Libraries Digital Collections], Collection Series : Directors' Files, Isaiah Bowman, Folder Title: Lee, Hoon K., 1931~1933, 2023-01-07 검색.

JSTOR IPRAC 자료, <https://www.jstor.org/journal/memoinstpacirela>, 2022-12-27 검색.

"Report of the Conference of FAO Twelfth Session", Rome, 16 November~5 December 1963,

<https://www.fao.org/3/x5571e/x5571e0q.htm#b.%20list%20of%20participants>, 2022-12-23 검색.

"The Ramon Magsaysay awardees", <https://www.rmaward.asia/awardee/nasu-shiroshi>, 2022-12-23 검색.

단행본

John Lossing Buck, *Land Utilization in China: A Study of 16,786 Farms in 168 Localities, and 38,256 Farm Families in Twenty-Two Provinces in China, 1929-1933*,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37.

Shiroshi Nasu, *Aspects of Japanese Agriculture: A Preliminary Survey*,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1.

_____, *Land Utilization in Japan*,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29.

Hoon K, Lee,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6.

Hao Hu, Funing Zhong, Calum G. Turvey, *Chinese Agriculture in the 1930s Investigations into John Lossing Buck's Rediscovered 'Land Utilization in China' Microdata*, Palgrave Macmillan, 2019.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The Study of International Affairs in the Pacific Area: a review of nine years' work in the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 of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36.

Laurence H. Shoup and William Minter, *Imperial Brain Trus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Monthly Review Press, 1977.

John N. Thomas,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Asian Scholars and American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4.

Peter Grose, *Continuing the Inquir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rom 1921 to 199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6.

W. L. Holland, edited by Paul F. Hooper, *Remembering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the memoirs of William L. Holland*, Ryukei Shyosha, 1995.

이훈구,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

_____, 『만주와 조선인』, 평양 숭실전문학교경제학연구실, 1932.

고정휴, 『태평양의 발견과 근대 조선 세계와 마주하다』, 나남출판, 2022.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조선일보 사람들-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중앙, 2004.

논문

Edited by James Terry White, "BUCK, J[ohn] Lossing", *The National Cyclopeda of American Biography* Vol. 59, James T. White & Company, 1980.

- John Lossing Buck, "Develop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Nanking, China, 1926-1946", *Cornell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Bulletin* 25, Cornell University, 1974.
- Official Report, "Japan Christian Medical Association", *The Japan Christian Yearbook 1965: A Survey of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During 1964*,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Japan, 1965.
- Paul F. Hooper,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and the Origins of Asian and Pacific Studies", *Pacific Affairs* 61, No. 1,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88.
- "Information Home & Abroad", *Asian Medical Journal* Vol. 8, No. 1, The Japan Medical Association, 1965.
- 大竹啓介, 「經濟更生運動の指導原理 - 那須皓氏に聞く -」, 『農山漁村經濟更生運動正史・資料』第6号, 農村更生協會, 1977.
- 松本武祝, 「太平洋問題調査会(IPR)における土地利用研究プロジェクトの展開 - 中国・日本・朝鮮の研究を中心に -」, 『アジア經濟』63卷 3号, 日本貿易振興機構 アジア經濟研究所, 2022.
-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 현실』6, 한국역사연구회, 1991.
- _____, 「식민지시대 미국 지식인의 한국문제 인식 - 태평양문제연구회(IPR)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58, 한국역사연구회, 2006.
- 김경일, 「식민지 시기 국제 민간 기구의 내용과 성격 - 태평양문제연구회(IPR)와 태평양회의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 김인수, 「일제하 이훈구의 토지 이용 조사의 정치적 의미」, 『사회와 역사』107, 한국사회사학회, 2015.
- 김진영, 「일제 식민지 시기 이훈구의 현실 참여와 사회개혁론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방기중, 「일제하 李勳求의 農業論과 經濟自立思想」, 『역사문제연구』1, 역사문제연구소, 1996.

Planning and Characteristics of Land Utilization Survey Projects by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n the 1930s

Kim, Jin Young*

In this paper, we tried to answer three main questions. Firs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budgetary support for IPR, we measured the importance of land utilization surveys in the overall project and its position in the three countries-Korea, China and Japan-. As a result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under the cause of producing and utilizing social science knowledge information, that surveys in China and Japan, where the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were projected, received a modest amount of funding among the total projects of the IPR. In contrast, only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money was allocated to colonial Joseon(Korea), and requests for additional support were ignored. This reveals a pattern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patial differences between the ‘empire and colonies’.

Second, we analyzed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shared by research in the three countries. We identified the ways in which the purpose of IPR, which is to produce knowledge information as a basis for building and comparing regional studies, was applied to each study. In addition, we discovered the academic grammar of the American-style social science research community and the orientation of agricultural social reform theories (movements) that meet the expectations of local communities.

Third, we examined the points where the specificity of each country's projects was reveal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spatial hierarchy and subject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lection. First of all, even among researchers from the same imperialism nations, there were differences in motivation and focu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realistic conditions of each area. Next, through the imperial and (semi -) colonial relationship, the effect of spatial characteristics on the problem of subject selection was analyzed. While China was characterized by the coexistence of the objectivity of the research projects and the relative autonomy of the reform subjects, colonial Joseon(Korea) was forced to seek reform at the level of a social movements led by some private sector in the face of a complete loss of sovereignty.

Key words: Hoon Koo Lee, John Lossing Buck, Shiroshi Nasu,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IPR), Land Utilization Survey, Interwar Period